

群山 노래섬貝塚 食料資源의 季節性 檢討

金建洙 (湖南文化財研究院)

I. 머리말

금강하류역의 서해안지역은 신석기시대유적 불모지였으나 1990년대 군장공단 조성과 함께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노래섬, 오식도, 비응도, 내초도, 가도, 띠섬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패총이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윤덕향외 1993).

노래섬(歌島 0.05km²)은 군산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1973년 거주인원 27명, 1983년 4명(2가구)으로 농업(약초재배)에 종사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민의 이주로 무인도로 변한 섬이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노래섬에서 飲用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곳은 나지구 동측사면으로 乾水를 확보할 수 있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섬은 중앙이 해발 36m이고 남북 500m, 동서 200~300m로 평면형태가 장고형이며, 북서측 暗礁海岸, 동측 砂質海岸, 동남측에 갯이 형성되어 있다. 조간대가 형성되지 않는 노래섬의 북서측 즉 비응도, 띠섬과의 사이의 大潮期 滿潮水深은 12m, 干潮水深 5m내외이다(그림1).

노래섬 주변의 潮間帶는 섬 중앙을 기점으로 동남측인 오식도, 가도 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규모는 동서 500~1,000m, 남북 2km 내외이며, 해발 0~3m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간대는 微細泥質과 砂質海岸으로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사질해안은 '가' 지구의 북동측, 니질해안은 남서측에 분포한다.

노래섬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패총이 6개소에 분포하고 있는데 소고에서는 자연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가' 지구 패총의 계절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그림2). 직접적인 자료로 자연유물을 살펴보고, 간접자료로 식물을 채취하였을 때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도구를 들어 그 계절성을 검토한다.